

# 재일동포사회를 통해서 본 한국다문화사회의 비판적 고찰

黄慧瓊\*

(e-mail : hhk5500@daum.net)

## <목 차>

1. 문제제기
2. 재일동포사회의 개요
  - 2.1. 재일동포의 형성 과정
  - 2.2. 재일동포의 인구 분포
3.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
  - 3.1. 식민화를 통해서 본 민족정체성
  - 3.2. 재일동포의 민족축제를 통해서 본 주류사회와의 관계
  - 3.3. 민족정체성의 표출방법
4. 일본인의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
5. 한국인의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
6. 시사점

キーワード：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national identity), 抑制的環境(restrictive environment), 主流社会(mainstream society), 少数民族(ethnic minority), 在日コリアン(Korean residents in Japan), 日本人(Japanese), 韓国人(Korean), 多文化主義(multiculturalism)

## 1. 문제제기

세계화의 확산과 확대로 국제이주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고 특히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국가와 사회적으로 노동력의 확충 및 문화의 다양화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회통합의 저해 또는 잠재적 불안 요인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의 구성 주체 간의 ‘다름’

\* 남서울대학교 강사, 일본학전공

에서 비롯되는 사회 갈등의 해소는 정책적 최우선 과제이다. 외국인의 정착을 받아들이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 포섭·배제 모형”, “동화 모형”, “다문화주의 모형”의 세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차별적 포섭·배제 모형이나 동화 모형에 입각한 국가에서는 문화적 단일성을 중시하는데 반해, 다문화주의 모형에 입각한 국가에서는 다원주의에 입각한 민족적 혼성성과 문화적 다양성 자체를 사회 구성의 기본 원리로 채용하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집단 간 상호 존중의 질서가 자리 잡도록 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sup>1)</sup>

우리사회에서는 동화 모형은 나쁘고 다문화주의 모형은 옳다는 식의 ‘흑백논리’가 만연하였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 정책 방향을 현재의 “차별적 포섭·배제 모형”에서 다문화주의모형으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주장하기도 한다.<sup>2)</sup> 이와 같은 사회진화론적 관점은 개별 국가의 역사적 배경이 다름에서 비롯된 결과로서 각기 다른 이민 정책과 사회 통합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던 것을 간과하는 것이다.

과거 유럽은 노동력 부족 현상을 메우기 위해 이주 장려 정책을 시행하였고 현재는 주로 동화 모형의 사회통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미국, 호주를 대표하는 신대륙은 초기 원주민과의 갈등과 더불어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 장려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고, 지금은 주로 다문화 모형의 사회통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주로 결혼 이주민 중심의 다인종적 사회 문제와 중국교포 중심의 저임금 노동력 유입이 주된 다문화 사회의 이슈이다. 또한 과거와 현재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차이는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대규모 노동 이민 사태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기도 어렵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 기업의 노동력 부족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주로 기업의 해외투자를 통한 생산성 및 시장 확보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은 외국인의 이민을 확대하기 어렵게 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동화주의모형과 다문화주의 모형간의 구분은 동화주의에서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이행을 당연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또한 다문화주의가 더 좋다는 식의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사회

1) Martinello, Marco (2002), 윤진 역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한울, pp.72-93.

2) 김미나 (2009), 「다문화 사회의 진행단계와 정책의 관점: 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연구」 『행정논총』 4(4),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pp.200-201.

통합을 위한 다문화주의 정책을 한 문화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지배집단과 소수집단 사이에 벌어지는 권력 투쟁으로 스펙트럼상의 정도 차이로 볼 수 있다.<sup>3)</sup> 이러한 관점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지배문화와 소수문화, 주류사회와 이민자사회 간에는 일정한 상하 위계질서가 구조화되어 결코 완전히 해체되지 않는다. 그것이 다문화주의의 한계이고 현실이다.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는 국가와 시장의 경제적 필요성에서 뿐만 아니라 차이의 인정과 소통을 통해 시민사회가 타자와 자신을 성찰하도록 하고, 인권을 문화권 영역까지 확대시키고 공동체를 보다 평등하고 조화롭고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모두 지향해야 하는 정책 이념이 되는 것이다.<sup>4)</sup>

오늘날 서구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정책실패의 연장선에서 다문화주의 실패가 논의되고 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가장 강한 비판은 사회를 파편화하고 국민통합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다. 최근 다문화주의를 그 한계와 대안으로 '상호문화주의 (interculturalism)'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상호문화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상이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국가들 (pluricultural societies·nations)의 통합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과제는 구성 집단 각각의 권리를 존중하며 연대의식 (relationship)을 창출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지원하며 활성화하는 것이다.<sup>5)</sup> 이러한 경향은 다문화주의의 이상적 구현 대신 실질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성 집단 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며 서로의 가치관과 문화를 융합해 가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좀 더 명확하게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정책상 우리와 유사한 이주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역사적으로 단일민족 국가라는 신념하에 단일민족을 중시하는 사회 환경적 요인이 유사하여 한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다수의 연구가 행해졌다.<sup>6)</sup> 그

3) Hartmann, Douglas, Joseph Gerteis (2005) 「Dealing with Diversity: Mapping Multiculturalism in Sociological terms」 Sociological Theory 23(2) pp.22-49.

4) 이태주(2007) 「다민족·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갈등과 극복과정」 『경제·인문 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277.

5) 이혜경(2014) 「국제이주·다문화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 15(1),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p.148.

6) 앞 논문, 이태주(2007) pp.158-201.

러나 연구의 목적이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사회(주류사회)에서 소수문화(이민자사회)로 인식되고 있는 재일동포사회의 정체성 재고(再考), 구체적으로는 첫째 재일동포 스스로의 정체성 강약(強弱), 둘째 일본인의 시점에서 본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의 변화, 셋째 한국인의 시점에서 본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하여 우리나라(주류사회)의 다문화정책을 소수문화(이민자사회)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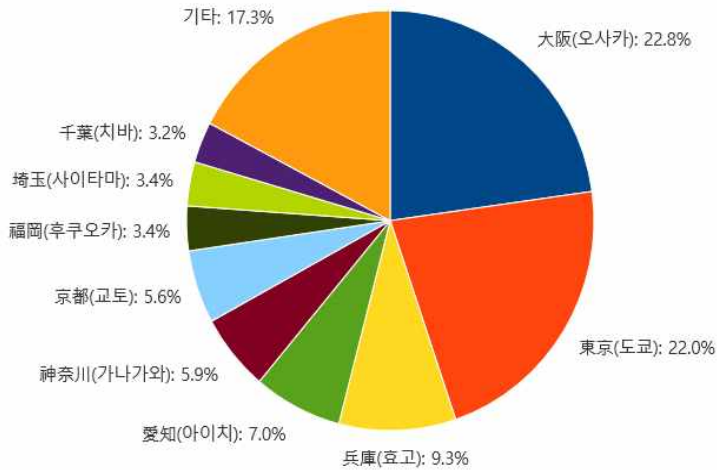
## 2. 재일동포사회의 개요

### 2.1. 재일동포의 인구분포

연구 대상지역으로, 오사카부(大阪府) 오사카시(大阪市)와 가나가와현(神奈川縣) 가와사키시(川崎市)를 선택했다. 첫째, 두 지역 모두 재일동포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도도부현(都道府縣) 별로 재일동포 인구를 보면, 일본 전국적으로 분산해 거주하고 있지만, 특히 서일본에 재일동포 인구가 많다. 그림1과 같이 오사카부가 가장 많고, 오사카부의 다음에 많은 것은 도쿄도(東京都)이고 이하, 효고현(兵庫縣), 아이치현(愛知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의 순서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오사카부는 2012년 현재, 재일동포 약 52만 명 중, 약 12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가나가와현의 재일동포 인구는 약 3만 명을 차지해 일본 도도부현 중 5번째로 많은 지역이고, 동일본에서는 도쿄도에 이어 2번째가 된다.

둘째, 두 지역은 근대 공업지대 형성과정에서, 노동자로서 모집되거나 강제연행되어 일본에 건너 온 조선인이나 그 자손이 대부분으로, 공업지대에서 일한 조선인이 많았다. 따라서, 전쟁 전부터 코리아타운이나 한국·조선 시장이 형성되어 특정 시구읍면에 재일동포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7) 본 논문은 저자의 경기복지재단 리포트 (2015) 「초고령사회 진입이후의 일본사회복지 이 슈분석연구」 pp.62-76을 수정 가필한 것임



\* 47개 지역 중 총인구 3.0%이상만 기재, 나머지는 기타.

그림1 재일동포 지역별 인구 분포 현황(2012년)

## 2.2. 재일동포의 형성과정

### 2.2.1. 오사카시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밀집지역 형성과정

오사카시 재일동포 형성과정을 杉原達(1991)에 의하면 오사카시 조선인 노동자의 등장은 1910년 이전 거의 보이지 않았고, 급격히 증가한 것은 한일합병 이후이다. 1911년 셋쓰(摂津)방직공장을 시작으로 처음에는 자진 이주하려는 것이었지만 대부분은 기업의 권유와 모집에 의해서 왔다. 1920년대 들어 더욱 입국 촉진요인으로, 한신(阪神)공업지대의 중요한 거점인 오사카 공업도시화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노동력 공급이 요구되고 토목 건설, 섬유 산업을 비롯한 소규모 공업에서 조선인 노동자가 몰려 들어왔다. 또한 한신공업지대는 저임금 노동자를 찾아 오사카방직 등이 제주도 들어가서 직공 모집 등을 실시했다.

한편 제주도 사람들에게도 경제상에 절실한 요구, 즉 수입 확보가 필요했었다. 오사카 측의 노동력 수요와 제주도민 측의 입국 희망을 연결하는 것으로, 제주도 도청에 의한 도향장려정책을 들 수가 있다. 1923년 제주도-오사카 간의 직행항로 개설을 계기로 오사카에 도향이 매우 쉽게 되었다. 그 결과 1934년 당시 일본에 체류하는 조선인 인구는 53만 8천명으로, 그 중 오사카 거주 조선인은 17만 1천명으로, 약 32%가 오사카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오사카시에서도 이쿠노구(生野区)에 재일동포가 가장 밀집되어있다. 이쿠노(구, 猪飼野)에 재일동포가 형성된 것은 히라노강(平野川) 개수공사에 종사했던 조선인이 이쿠노구에 살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이쿠노구는 다이쇼(大正)말기, 3-4만 명의 조선인이 거주했는데, 이것은 히라노운하공사를 위해 수많은 조선인이 모인 것이 기원이 되었고, 공사완료 후에도 운하를 따라서 이쿠노 일대에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1923년 제주도-오사카 항로 개설을 계기로 인구는 급증했다. 제주도에 직접 가서 사람 모집에 나선 것은 간사이방직(関西紡績), 방직(紡織), 조선(造船), 제강(製鋼) 관련기업이었다. 그 대부분이 가장 하층 노동자로, 이쿠노구 주변에 살기 시작했다. 현재 오사카에서 재일동포 인구는 약 12만 명 정도로 일본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쿠노구만으로 오사카에 거주하는 재일동포 인구의 약 40%가 밀집되어있다.

### 2.2.2. 가와사키시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밀집지역 형성과정

가와사키시의 재일동포 형성과정에 관해서 川崎地方自治研究センター編(1993)과 神奈川の中の朝鮮編集委員会編(1998)에 의하면 가와사키시에는 약 9천명의 재일동포가 거주하고, 그 절반 이상이 케이힌(京浜)공업지역에 속하는 남부지역에 집중되어있다. 재일동포의 가와사키로 이주는 1910년대부터 시작되어, 케이힌공업지대의 발달과 1924년 시의 정책이 시행된 가와사키시의 발전과 관련이 깊다.

1910년 이후, 가와사키시 남부에는 일본강관(日本鋼管)을 비롯해 후지방직(富士紡績), 스즈키(鈴木)상점(현, 味の素), 도쿄(東京)전기(현, Toshiba)의 공장진출에 이어, 1917년에는 아사노(浅野)시멘트(현, 第一セメント)가 다지마(田島)마을에 공장을 건설했다. 1919년, 타마가와(多摩川)에서 채취한 자갈을 운반하기 위해서 타마가와자갈철도(주)가 설립되었고, 이 시기에 타마가와 자갈채취인부로 조선인이 일하고 있었다. 즉, 가와사키시의 조선인은 케이힌공업지역 초창기 시절부터 거주했고, 공장 건설을 위한 인부나 건설노동자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23년에 관동대지진이 발생 가와사키지역에도 지진방지 재건사업에 따른 대규모 인력 수요가 발생, 1931년 만주사변발발에 의한 군수생산의 증대와 함께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로 했다. 1939년에 강제연행이 시작되자, 일본강관은 현재 이케가미초(池上町) 일대를 인수하고, 군수공장(현, 京浜製鉄所六管工

場) 건설에 착수했다. 따라서 노동자로서 조선인이 집중적으로 증가했고, 전쟁 말기에는 아마 수천 명에서 1만 명의 조선인이 이 지역에서 노동했다고 짐작되고 있다. 1945년 일본의 패전은 조선인에게는 해방이었고, 징용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연행 되어온 사람의 대다수가 혼자여서 가족을 기다리는 조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당수의 조선인이 남았다.

현재 가와사키시의 재일동포 인구는 가와사키구에 집중되어있다. 그 이유로 가와사키구는 공장지대이고, 모집 또는 강제연행에 의한 재일동포 노동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이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남은 사람도 같은 고향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3.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

재일동포 연구는 교육면·정치면·사회면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대부분은 재일동포사회 전체와 일본사회와의 관계라는 전체적 시야에 중점을 두어, 재일동포생활의 최소단위인 가정은 고찰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정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주류사회에 있어서 소수민족문화 계승과정을 보려면 민족총체로서가 아니라 가정을 통해 전승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식문화는 사회집단 전체 속에서 계승되는 측면보다도 가족 내에서 부모에서 자식으로 전승, 계승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식문화는 거주 지역별로 그 특성이 변화함과 동시에 식문화를 공유하는 인간집단 간에 있어서도 어떠한 연대감 즉 정체성을 공유함에 따라서 다른 인간집단과 구별 시키는 특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체성을 생각하면 모국 언어 사용여부, 국적, 이름 등의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생각해 왔지만, 이러한 것들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민족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식문화는 보통 가정 내에서 부모에게 자녀로 계승되는 것으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민족축제는 일본사회에서의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동족의식으로서의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장소이자, 민

족문화를 계승하며 민족적 자각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 3.1. 식문화를 통해서 본 민족정체성

먼저 식문화를 통해서 민족정체성과 지역적 차이를 고찰하였다<sup>8)</sup>. 식문화에서도 행사식(行事食)과 일상식(日常食)은 외부환경에 따른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여 나누어 분석하였다. 행사식은 주로 제사나 명절음식으로 이것은 외부의 억압과 차별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 한편, 일상식은 행사식에 비해서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오사카시 재일동포의 경우는 민족정체성과 행사식·일상식 전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 그림3과 같이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한국의 행사식과 일상식의 섭취가 많았고, 전통적으로 지켜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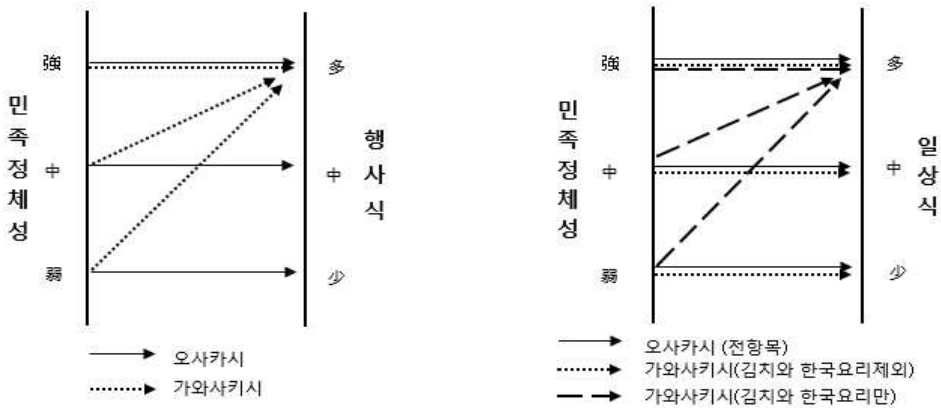


그림2 민족정체성과 행사식과의 관계 그림3 민족정체성과 일상식과의 관계

한편, 가와사키시 재일동포의 경우는 민족정체성과 행사식에 있어서는 관련이 없었다. 이것은 가와사키시의 경우 오사카시 보다 「억제적 환경」<sup>9)</sup>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억제적 환경」은 개인이 처해진 사회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8) 黄慧瓊(2006) 「在日コリアンのホスト社会による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の差異－大阪市と川崎市の行事食を中心に－」 『日本文化学報』 29, 韓国日本文化学会, pp.203-218.

\_\_\_\_\_ (2007) 「在日コリアンのホスト社会による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の地域的差異(2)－大阪市と川崎市の日常食を中心に－」 『日本文化学報』 34, 韓国日本文化学会, pp.676-691.

9) 재일코리안 인구: 오사카시 이쿠노구 22.3%, 가와사키시 가와사카구 2.0%로 차이가 큼



자기 자신이 재일동포라는 것을 일상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환경을 말한다. 「억제적 환경」 속에서는 민족정체성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작용하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민족정체성이 약했던 사람도 민족정체성이 고양된다. 행사식은 의례(제사 및 각종행사) 의식이 음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정체성이 약했던 사람들도 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와사키시의 경우 일상식에 있어서는 민족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분에 있어서 민족정체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일본인 사이에서도 보편화 되어 있고, 재일동포가 주류사회와 표면적인 「공생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가와사키시의 경우 정치적 슬로건(slogan)으로서의 「공생사회」가 표면적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별이 해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압도적인 호스트(host), 즉 주류사회 속에서 소수민족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주류사회와의 표면적인 「공생사회」에 들어가던지, 동화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하여 가와사키시에서는 표면적인 「공생사회」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코리안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없을 뿐이다. 즉, 표면적인 「공생사회」에서는, 민족정체성이 일상생활에서는 무의식화 되는 경향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잠재화되어 결과적으로 재일동포에 있어서 「억제적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과 고찰로부터 민족정체성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식문화는 불가결한 요소이고, 민족정체성의 강약이 재일동포의 식문화에 상이하게 반영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나아가서 주류사회의 환경 차이에 의해서, 민족정체성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경우와 굴절되어서 표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 이웃 간의 교류: 오사카시는 「일본인이 많다 7.7%」 「반반 48.3%」 「재일동포가 많다 23.9%」 「기타 20.1%」, 가와사키시는 「일본인이 대부분 61.0%」 「일본인과 자주 26.0%」 「가끔 일본인 10.0%」 「일본인 이외의 사람들 2.0%」로 오사카시는 동포들과의 교류가 많으며, 가와사키시는 일본인과의 교류가 많음
  - 직종: 오사카시 「자영업 69.1%」 「피고용 30.9%」, 가와사카시 「자영업 39.4%」 「피고용 60.6%」. 가와사키시 쪽이 생계유지상 일본인과 접촉할 시간이 많음
  - 공립초등학교 재일동포 재적률: 오사카시 이쿠노구는 공립초등학교 19교, 전체 아동대비 평균 24.5%, 그 중 집중되어있는 5교는 50%이상.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는 공립초등학교 21교, 전체 아동대비 평균1.1%, 가장 많은 학교가 14.2%, 그 다음이 3.0% 미만
  - 민족학급: 방과 후 재일동포 아이들이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 음악 등을 배울 수 있는 곳이나 오사카시에는 개설되어 있으나, 가와사키시에는 개설되어있지 않음
- 이 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黄慧瓊(2007) 참조

### 3.2. 재일동포의 민족축제를 통해서 본 주류사회와의 관계

다음은 재일동포의 민족축제를 통해서 주류사회와의 관계에 따른 영향을 고찰하였다<sup>10)</sup>. 재일동포에 있어서 민족축제 의미와 주류사회와의 관계에 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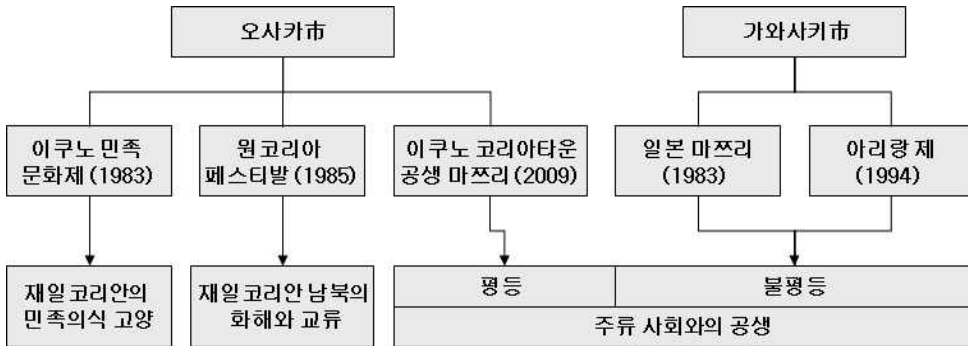


그림 4 재일동포의 민족축제와 주류사회와의 관계

오사카시와 가와사키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민족축제는 재일동포에 있어서 일본사회의 혹독한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한을 푸념할 수 있는 장소이자, 민족문화를 접하고 계승하며, 민족적 자각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지역에 있어서 주류사회와의 관계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두 지역에 있어서 특징은 그림4와 같다. 오사카시 이쿠노구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재일동포임을 외부에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표출하면서 살 수 있는 장소로 이쿠노민족문화제와 같은 주류사회에 저항할 수 있는 축제가 생성되었다.

한편,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의 경우는 오사카시보다 억제적인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표면적인 공생사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족축제도 아리랑제와 일본 마쓰리와 같이 호스트사회와의 공생이지만 불평등한 관계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일본마쓰리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평등한 공생관계로는 느낄 수가 없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오사카시 이쿠노지역의 축제이다. 오사카시의 이쿠노코리아타운 공생마쓰리는 이쿠노라는 지역에 일본인이 참여하며 공생관

10) 黃慧瓊(2010) 「재일코리안에 있어서 민족축제의 의미와 호스트사회의 관계」 『일본문화학보』 46, 한국일본문화학회, pp.471-492.

계를 내세우는 마쓰리가 개최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준다. 이것은 일본에서 1세기 넘게 살아온 재일동포가, 앞으로도 후손들이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할 터전에 일본에 대한 무조건 저항, 반대만으로 일본사회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음을, 현실과 동떨어짐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재일동포의 전통문화를 일본인들에게도 알려서, 현실적으로 그들도 공감하고, 그들에게 훌륭하고 대단함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재일동포 3세·4세·5세, 연령이 젊어질수록 부모 한 쪽만 재일동포인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로 이러한 현실을 다 간과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들이 평등한 공생사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일본과 한국, 주류사회와 재일동포사회가 대등한 관계로, 진정한 공생사회가 형성되는데 한 발자국 다가서는 단계로 기대 할 수가 있다.

### 3.3. 민족정체성의 표출방법

서일본을 대표하는 오사카시 이쿠노구 재일동포는 상대적으로 개방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동일본을 대표하는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재일동포는 오사카에 비해 보다 억제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민족정체성을 표출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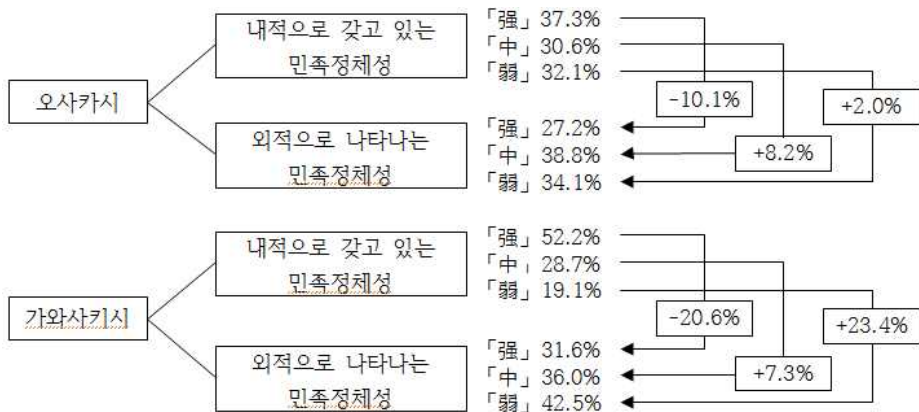


그림5 오사카시와 가와사키시에 있어서 민족정체성의 표출 차이

그림5와 같이 자신이 코리안이라는 자각을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외적

으로 표출하는 것과의 차이가 오사카시와 비교해서 가와사키시 쪽이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1)</sup>. 이것은 가와사키시 재일동포가 일본인과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코리안이라는 것에 관해서 보다 「억제적인 환경」 아래에 있기 때문에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도 일상생활에서 표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으로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주류사회의 환경에 따라서 소수집단의 생활은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게 된다. 민족축제를 통해서도 나타난 결과이지만, 표면적으로 공생사회라 하지만, 실질적인 평등한 공생사회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억제적인 환경을 배제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일본에서의 소수민족인 재일동포 스스로의 정체성을 통해서 환경의 차이에 따른 주류사회와의 관련성을 고찰하였다. 즉 주류사회의 다수민족인 일본인이 소수민족인 재일동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였다.

#### 4. 일본인의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

한류로 인한 일본인의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변화를 연령별로 한류이전과 한류이후도 나눠서 보았다<sup>12)</sup>. 그 결과 한류이전에는 30-40대가 가장 관심이 많았으나, 한류이후에 50-60대 이상이 가장 관심이 많았다. 또한, 한국 관심 시점으로는 10-20대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가 가장 많았고, 30-40대는 겨울연가 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순으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50-60대 이상은 겨울연가 시청이후가 50%이상으로 대폭 상승했다. 그리고 전 연령 70% 이상이 한류의 의미를 한국드라마 붐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류의 관심정도」를 보면 50-60대 이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40대, 10-20대 순 이었다.

그림6과 같이 한류이전에는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으로 친근감에 있어서 다른 연령에 비해 30-40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류이후에는 30-40

11) 앞 논문 黃慧瓊(2006, 2007) 참조

12) 黃慧瓊(2008) 「한류로 인한 일본인의 한국인과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변화-관서지방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36, 한국일본문화학회, pp.452-467.

(2009) 「일본사회에서의 한류열풍으로 인한 한국인과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변화-연령별 분석-」 『일본문화학보』 42, 한국일본문화학회, pp.268-289.

대보다 10-20대와 50-60대 이상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50-60대 이상의 경우는 관심 없던 사람들이 급격하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었다. 즉, 한류로 인해서 전 연령대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특히, 50-60대 이상이 한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라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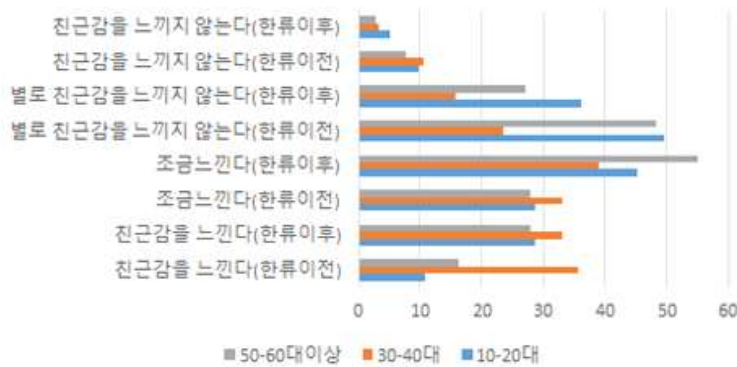


그림6 재일동포의 친근감 정도 (한류이전·한류이후 비교)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각 연령별로 특징을 보면, 한류를 통해서 10-20대는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30-40대는 긍정적에서 더 관심으로, 50-60대는 무관심 또는 내재적인 부정적에서 많은 관심으로 변화된 것을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서 고찰 할 수가 있었다. 즉, 일본사회에 있어서 한류가 한국·한국인·재일동포의 이미지를 연령별로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으며, 특히, 과거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한국에 대해서 극도로 보수적인 50-60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전환점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주류사회의 다수민족인 일본인이 소수민족인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다문화사회의 시점으로 소수민족들의 문화를 매스컴이나, 드라마, 축제 등을 통해서 소수민족들의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선입관을 배제할 수 있다. 즉, 주류집단의 인식을 문화적 콘텐츠로 개선할 수 있다.

## 5. 한국인의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

다음은 같은 민족인 한국인은 재일동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sup>13)</sup>. 한국 대학생들이 재일동포의 존재를 알게 된 계기로는 대부분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고, 이러한 재일동포를 45%는 한국인, 30% 정도는 일본인, 10%는 일반 외국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우리 역사에 대한 긍지가 높고, 많은 학생이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한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혈통, 국적보다는 자부심과 의식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재일동포에 친근감은 별로 느끼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재일동포가 한국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민족정체성 강약에 따른 재일동포에 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첫째, 한국 대학생들의 재일동포에 대한 관심문제로, 재일동포에 대한 친근감에 있어서는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재일동포에 대한 친근감이 높았으며, 민족정체성이 약할수록 친근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재일동포 문제를 우리 일로 생각하고 있고, 민족정체성이 약할수록 재일동포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전혀 무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재일동포를 한국인으로, 민족정체성이 약할수록 일본인, 그냥 외국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둘째, 재일동포가 한국에 대한 관심문제에 관해서는 민족정체성 강약에 상관없이 한국보다 일본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재일동포가 한국·한국인에 대한 관심은 많다고 생각하지만, 한국과 일본 간의 친근감에서는 일본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가 간의 관계가 그 나라 민족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보았다. 한국과의 관계에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우호관계에 있어서는 관련성이 있어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미국, 민족정체성이 약할수록 일본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일동포와 재미동포에 대한 친근감 정도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둘 다 우리 동포로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 일본인에 대한 친근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 재일동포에 대한 친근감

13) 黄慧瓊(2014) 「한국대학생의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 60, 한국일본문화학회, pp.411-429.

\_\_\_\_\_ (2015) 「민족정체성에 따른 재일동포인식에 관한 비교 연구」 『일본문화학보』 65, 한국일본문화학회, pp.294-311.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 간의 관계가 나빠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민족정체성 강약과도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민족정체성에 따라서 재일동포에 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민족정체성이 강한 사람은 재일동포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우리민족으로 생각,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주려는 입장이 강했다. 그러나 민족정체성이 약한 사람들은 재일동포와 우리는 별개로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과거 일본에 강제징용 등으로 일본에 건너가 과거의 어려운 역경을 겪고 지금까지도 많은 차별 속에서 살고 있는 재일동포사회를 좀 더 이해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일동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많이 의식하고 살지 않았던 이방인과 같은 존재인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동포에 대해 무관심한, 민족정체성이 약한 젊은이들은 애국심과 민족의식 고양 등으로 재일동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 젊은이들에게 애국심을 고양하면 재일동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민족에 대한 거부감도 강해져 한국 다문화 사회에 적용한다면, 애국심 고양의 오히려 단일민족주의를 강화하고 극단적으로 전체주의로 빠질 위험도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족성 교육에서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다문화 사회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6. 시사점

일본에서 다문화공생이란 용어는 1993년 가와사키시 주민조직이 ‘다문화공생마을 만들기’를 가와사키시에 제안하면서 처음 사용되었고, 1995년 오사카시에 ‘다문화공생센터’가 설치된 이후 교토, 히로시마, 도쿄로 확대되었다. 다문화공생이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평등하게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일본사회에서 실제로 지방자치제를 중심으로 외국인

들과 지역사회에서 공존, 공생하기 위한 주민생활운동에서 시작되었으며, 중앙 정부의 다문화 공생 추진플랜은 지역에서의 다문화 공생 주민운동을 지원하는 낮은 수준에서 전개되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진행되었으나 다문화사회 구성 및 그 사회 환경은 우리와 매우 유사하다.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증가,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중국동포에 해당될 수 있는 일계 브라질인의 존재 등 공통점이 많다. 동시에 일본 국민의 단일민족성에 대한 강한 인식은 우리 사회와 너무도 유사한 사회적 환경 요인이라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다문화 사례와 다문화 정책은 우리 사회에 시사 하는 바가 크며, 주요 참고 국가로 연구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일본사회에서 소수민족인 재일동포사회를 재일동포의 당사자적 관점과 일본인이 보는 재일동포에 대한 관점, 그리고 한국인이 보는 재일동포에 대한 관점으로 세분하여 일본에서의 다문화사회의 일면을 고찰하여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주류사회의 소수집단에 대한 억제적인 환경은 소수집단의 자연스러운 정체성 발현을 어렵게 한다. 이것은 오히려 극단적인 상황에서 정체성 폭발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표출 될 수 있는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억제적인 환경을 완화 또는 없애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소수 약자에 대한 우대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주류사회의 일방적인 동화가 아닌 소수민족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옹호하면서 한국의 지역사회에 융합할 수 있는 시민사회적 통합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일본인의 재일동포인식을 통한 다문화사회의 시사점으로 주류사회 사람들의 선입관이나 편견을 문화적 콘텐츠를 활용하여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주류사회와 소수집단의 건전한 문화융합의 상호작용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주류 시민사회의 적극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사회가 지니는 배타적 단일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과 연대를 위한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다문화주의 사회의 성숙을 위한 시민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인의 재일동포 인식 고찰을 통해서 한국 젊은이들에게 애국심을 고양하면 재일동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개선됨을 볼 수 있었고, 이는 민족성



함양 교육이 재외동포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 구성원 중 조선족, 즉 중국동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서 민족성 교육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 민족성 함양 교육이 과거처럼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으로 치우친다면 오히려 타민족 이주민에 대한 배타성만 키우게 되어 그 부작용은 커질 것이다. 따라서 민족정체성 교육은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보편적 인권교육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며, 자국 문화에 대한 우월감이 아닌 자긍심을 갖는 문화민족정체성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초기에 있으며 향후 급격한 이주 정책의 변화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단기적이고 급진적 다문화 정책의 도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과 수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류사회와 소수집단 간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 할 수 있는 교육 이념과 체계를 세우는 것이 국가 정책의 시급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유럽에서 행해지고 있는 ‘상호문화교육’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유럽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일련의 폭동 사태로 인해 실패한 것으로 취급받기도 하지만, 상호문화교육이 담고 있는 이념은 우리나라 다문화주의 교육 방향으로 삼아 볼 만 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와 같은 교육 정책을 바탕으로 향후 새로운 유형의 한국적 다원주의적 사회 정책들을 모색해 나가야 하며, 다문화주의 대상이 해외 동포로의 확대 및 미래 통일 한국에서 나타날 다문화적 사회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미나 (2009), 「다문화 사회의 진행단계와 정책의 관점: 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 연구」 『행정논총』 4(4),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pp.193-223.
- Martinello, Marco (2002), 윤진 역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한울
- 이태주(2007) 「다민족·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갈등과 극복과정」 『경제·인문사회 연구회협동연구총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혜경(2014) 「국제이주·다문화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 15(1), 고려대학교 한국사회 연구소, pp.129-161.
- 黄慧瓊(2008) 「한류로 인한 일본인의 한국인과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변화-관서지방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36, 한국일본문화학회, pp.452-467
- \_\_\_\_\_ (2009) 「일본사회에서의 한류열풍으로 인한 한국인과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변화-연령별 분석-」 『일본문화학보』 42, 한국일본문화학회, pp.268-289.
- \_\_\_\_\_ (2010) 「재일코리안에 있어서 민족축제의 의미와 호스트사회의 관계」 『일본문화학보』 46, 한국일본문화학회, pp.471-492.
- \_\_\_\_\_ (2014) 「한국대학생의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 60, 한국일본문화학회, pp.411-429.
- \_\_\_\_\_ (2015) 「민족정체성에 따른 재일동포인식에 관한 비교 연구」 『일본문화학보』 65, 한국일본문화학회, pp.294-311.
- 神奈川の中の朝鮮編集委員会編(1998) 『神奈川のなかの朝鮮』 明石書店, pp.179-191.
- 川崎地方自治研究センター編(1993) 『在日外国人を理解するためのハンドブック第1集』 川崎市市役所, pp.5-13.
- 杉原達(1991) 「在阪朝鮮人の渡航過程-朝鮮·濟州島との関連-」, 杉原薰他編 『大正／大阪／スラム-もうひとつの日本近代史』 新評論, pp.215-248.
- 黄慧瓊(2006) 「在日コリアンのホスト社会による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の差異-大阪市と川崎市の行事食を中心に-」 『日本文化学報』 29, 韓国日本文化学会, pp.204-218.
- \_\_\_\_\_ (2007) 「在日コリアンのホスト社会による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の地域的差異(2)-大阪市と川崎市の日常食を中心に-」 『日本文化学報』 34, 韓国日本文化学会, pp.676-691.
- Hartmann, Douglas, Joseph Gerteis (2005) 「Dealing with Diversity: Mapping Multiculturalism in Sociological terms」 Sociological Theory 23(2), pp.22-49.

논문 투고 일자 : 2015. 12. 29
논문 심사 일자 : 2016. 1. 31
게재 확정 일자 : 2016. 2. 4

< 要旨 >

在日コリアン社会を通してみた韓国多文化社会の批判的考察

黄慧瓊

本稿は、日本社会において少数民族である在日コリアン社会を在日コリアン当事者視点と日本人がみる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視点、そして韓国人がみる在日コリアンに関する視点という点に細かく分けて、日本での多文化社会の一面を考察し、その示唆する点を提示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

一つには、在日コリアンの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を通して理解し得たように、少数集団における主流社会に対する抑制的な環境は彼らの自然なアイデンティティの表出を難しくする。二つ目は、日本人の在日コリアン認識を通じた多文化社会の示唆する点として、主流社会の人々の先入観や偏見を文化的なコンテンツを活用して改善できると思われる。三つ目は、韓国人の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認識考察を通して韓国の若者をして愛国心を高揚させることで、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親密感を高め、連帯感を増大できるという点が挙げられる。

一方、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の育成教育が単一民族を強調することに偏ると、かえって他民族の移住民に対する排他性を育てることになり、その副作用は大きくなるだろう。従って、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教育は多文化主義に立脚した普遍的な人権教育をベースに自国文化に対する優越感ではなく、誇りを持つ文化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教育として行われるべきである。

A Critical Review of the Korea multicultural society through Korean Resident Society in Japan

Hwang, Hye-Kyoung

The present study aims at examining the aspects of multicultural society of Japan and providing their implic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community of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an ethnic minority in Japanese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orean residents on themselv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Japanese people on the Korean Japanese, 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orean people on the Korean Japanese.

First, the restrictive environment of the mainstream society on the minority group makes it difficult for the minority group to express its identity in a natural way. Second, the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society reached through Japanese people's perception of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opens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the preconception and prejudice of people in the mainstream society by making use of cultural contents. Third, examination of the Korean people's perception of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showed that inspiring the patriotism of Korean youths improved their interest in and perception of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On the other hand, if education to foster the national spirit leans toward emphasis on the ethnically homogeneous nation, it would rather raise hostility to the immigrants of different ethnic origins and only increase adverse effects. Therefore, education of national identity should focus on general human rights education based upon multiculturalis.